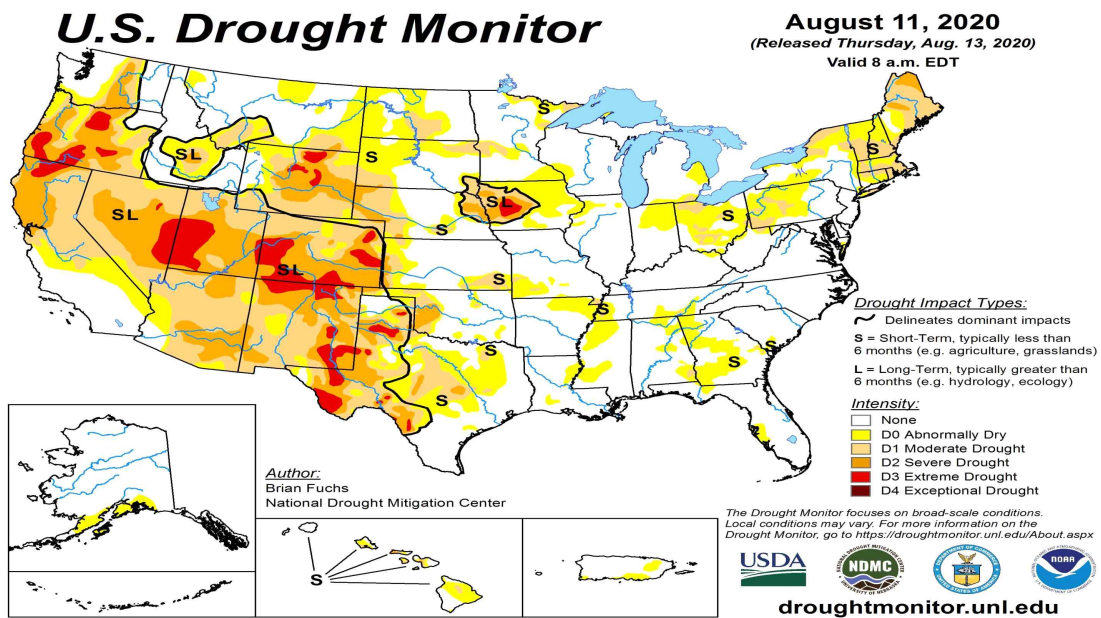


8월 1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3)

□ 미국 기후 현황(8/9~8/15)

8월 10일, 폭풍 (테레코)이 약 14시간 동안 약 770 마일 가량을 뒤덮으며 중서부를 휩쓸었다. 아이오와 주 중부의 3분의 1 가량을 가로지르는 서동부 지역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마셜 타운, 앙키니, 디모인 및 데번포트 같은 지역 사회에서 시속 75~100 마일의 광범위한 돌풍이 발생했다. 대체로 네브라스카 동부에서 오하이오 서부까지 뻗어 있는 더 넓은 지역에는 큰 우박과 국지성 토네이도들의 포켓을 따라 부는 시속 60 마일이 넘는 강풍이 눈에 띄었다. 아이오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대에서 찍은 위성 영상에서는 옥수수가 쓰러져 있거나 부러져 있는 등의 큰 식생 변화가 포착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테레코가 아이오와와 오하이오 주 일부를 포함하는 중서부의 가뭄 지역의 가뭄을 최소한이나마 해소해주었다는 것이다. 남동부에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 내린 폭우가 목초지와 미성숙 여름 작물들에게 유리한 재배 조건을 유지해주었지만 야외 작업을 방해했고 지역 홍수를 일으켰다. 대체적으로 북동부와 태평양 연안에서 고평원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방목지와 천수답 여름 작물들에게 미치는 열 및 가뭄 관련 영향은 대체로 미국 서부 절반에서 악화되었다. 사실 평년에 가깝거나 높은 기온이 전국 대부분을 덮었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주로 북서부로 제한되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더 차가운 공기가 중서부를 덮었고 고원 남부와 남서부에서 지속되던 열기가 나중에 서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과 애리조나 남부에서 고원 중부 및 남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오대호 지역 일부와 북동부 대부분에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8/10~8/16)

8월 10일, 격렬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복합 뇌우, ‘데레코’가 아이오와 중앙과 인근 지역에 파괴적인 바람을 일으켰다. 한편, 서부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계속 건조했다. 대조적으로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평원 및 남동부의 많은 부분에서는 비정상적인 강수가 발생했다. 아칸소-오클라호마 경계의 일부를 따라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나라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뉴 잉글랜드, 남서부 및 텍사스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6°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그밖에,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 대부분은 평년 이하의 기온을 보였다. 아이다호, 몬타나 및 워싱턴 일부는 평년보다 4° F 이상의 낮은 기온이 눈에 띄었다.

□ 세계 기후 현황(8/9~8/15)

■ 유럽: 주초에 서부 지역에서 급성 단기 가뭄이 최절정에 올랐을 때의 극심한 열기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던 여름 작물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쳤다. 주간이 진행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온기가 (평년의 4~8° C 이상)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유럽 대부분에서 강한 한랭 전선을 앞에 두고 기온이 다시 높은 30도대 (섭씨)로 치솟았다. 모니터링 기간 중에 서쪽에서 도착한 한랭 전선이 스페인, 프랑스 및 잉글랜드 전역에서, 매우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 (1~45 mm)를 촉발시켰다. 비가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열이 생식기-종실비대기 여름 작물에게 미친 영향은 단기 건조와 가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프랑스 남서부 옥수수과 해바라기 지역은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평년의 30% 미만의 강우량을 보고했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작물의 주요 발달기와 일치한다. 불가리아 동부와 루마니아의 최남단 일부에서 열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33~35° C), 지난 30일 동안 다뉴브 강을 따라 그리고 바로 남쪽에서 유사한 건조가 관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0일 동안 광범위한 소나기 (2~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열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기는 했지만, 독일, 폴란드 및 나머지 발칸반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에 도달했다. 주로 유럽 북동부에만 건조했기 때문에 날씨가 여름 작물의 발달과 초겨울 유채 파종을 촉진해주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건조했지만 러시아 서중앙부는 추가로 소나기가 내려서 대조적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동부 여름 작물 지역에 있는, 가벼운 비 (1~7 mm)를 내리는 포켓이 최근의 국지적 단기 건조를 거의 해소해주지 못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30일 총강우량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는 했지만,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중부의 남서부에서 북동부 (체르카시에서 폴타바 오블라스트)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년의 25~140% 범위 내에 있었다. 옥수수와 대두는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는데 재매기를 양호하게 시작했던 이 여름 작물들은 약간의 수확 잠재력을 잃었다. 그러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낮아서 건조 영향을 다소 완화했다. 러시아의 더 먼 동쪽에서는 쌀쌀한 날씨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음)가 우세했고 남서부 재배 지역에 변동적인 소나기 (1~17 mm)가 내렸고 더 북쪽의 경작지에 보통-강한 비 (10~70 mm)가 널리 내렸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작물 전망은 여전히 복잡하여 남러시아는 식생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위성 데이터 상으로), 여름 비가 더 일정하게 내린 먼 북쪽은 상태가 양호했다.



■ 동아시아: 강우의 파동이 동중국 대부분을 밀고 지나가면서 남부 일부는 물론이고 북동부와 동중부 지역의 작물들에게 광범위하게 수분을 내려주었다. 북동쪽에서는 소멸되는 열대성 저기압(장미)에 의해 소나기가 강화되어 100 mm 이상의 비를 내렸다. 그 수분은 생식 후기에 있는 옥수수과 대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7월 중에 겪은 극심한 건조를 완화했다. 한편, 북중국 평원에 보고된 50~100 mm (지역적으로 200 mm 이상)의 폭우가 여름 작물들에게 물을 잘 공급해주었지만 비가 가장 심하게 내렸던 지역에서는 국지성 홍수를 일으켰다. 먼 남쪽에는 약한 열대성 저기압(멕칼라)의 소나기가 양쯔 계곡 일부로 밀려 들어가 6월과 7월의 대홍수로 인해 계속되던 극심한 축축함을 악화시켰다. 그밖에 한반도 전역에도 장미와 관련된 폭우(100 mm 이상)가 보고되었는데 벼와 기타 작물에 내린 60일 총 강우량을 평년 이상으로 밀어 올렸다. 대조적으로 일본 대부분은 먼 남쪽과 북쪽에 약간의 산발적인 소나기만이 있었을 뿐 건조했다.

■ 호주: 연속된 두 번째 주간 동안에 밀 벨트 대부분에 비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더욱 상승시켰다.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이 생식기에 접근하거나 진입하고 있었던 퀸즐랜드 남부에서 그 수분은 시기적절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그 비가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 대한 작물 전망을 양호하게 또는 우수하게 유지해주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으로서 빅토리아, 남호주 및 서호주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에 도움을 주어서 지역의 수확 잠재력을 유지 및 개선해주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기온이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다소 높아서 (평년보다 최대 2° C 높음),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으면서 영양 생상을 촉진했다.

■ 아르헨티나: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날씨가 시원하고 화창하여 월동 중인 밀과 보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와 먼 북동부 (코리엔테스와 미시오네스 동부)에 국지성 소나기 (10 mm 이상)가 몇 차례 내린 것을 제외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코르도바와 기타 서부 생산 지역은 장기 건조 영향에 대응하려면 여전히 비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남부 및 서부 농업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고 여러 밤 동안 영하로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서 식물 성장이 느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13일 현재 각각 99% 및 98% 밀과 보리 파종이 끝났다.

■ 브라질: 남부 농업 지역에서 비가 수주간의 건조 이후에 토양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밀에게 유익했다. 파라나 남부와 리우 그란데 두술 북부에 내린 강우 총량은 10~25 mm였고 이들 주의 다른 곳에는 더 적은 양이 내렸다. 날씨가 평년보다 더 따뜻했고 (낮 최고 기온이 30° C에 육박) 결빙이 없어서 곡물 발달이 촉진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8월 10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51 %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88 %가 성숙기에 있었다; 밀은 70 % 이상이 생식기에 이르러서 수주간의 건조 이후로 추가 수분이 주어지면 좋을 것이다. 나중에 밀을 심은 리우 그란데 두술에서는 8월 13일 현재 11 %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그 밖에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내륙에서는 여름의 따뜻함과 건조가 2차 여름 작물들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옥수수 수확은 거의 끝났다; 면화는 74 % 수확되어 작년속도 보다 거의 10 포인트 앞섰다. 한편, 동부 해안을 따라 가벼운 소나기 (지역적으로 10 mm 이상)가 계속되었다.